

‘사업비 7조’ 한남3구역, 건설빅3 클린수주 전통 서울까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

건설3사, 홍보관 오픈

입찰제안서 통해 표심잡기 승부수
홍보관 내부선 경쟁사 제안 비판 등
클린수주문화 사라지고 공방전만

총 사업비 7조원 규모의 정비사업장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수주전이 본격화 되는 가운데 상호 비방 없는 ‘클린수주문화’가 지켜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은 지난 4일 1차 합동설명회를 개최해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 등의 입찰제안 내용을 조합원에게 공개했다.

◆ 대형 3사, 사업비·공사기간 제시
조합이 작성한 입찰제안서 비교표를 보면 사업비 대역자금은 현대건설 2조 원 이상(사업 촉진비 5000억 원 포함), 대림산업 1조6000억원, GS건설 1조 5000억원 순이었다.



한남3구역 전경.

/정연우 기자

이주비 지원에 대해서는 현대건설과 대림산업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100%를 조달하겠다고 했고 GS건설은 기본 이주비로 LTV 40%, 추가 이주비로 LTV 50%를 제시했다.

착공시기는 GS건설이 이주 후 3개월 내를, 대림산업은 4개월 내, 현대건설은 이주 후 6개월 내 순이었다. 또 공사기간은 대림산업이 착공 후 35개월 내, GS건설 36개월, 현대건설 37개월 내 순

이었다. 현대건설은 공사비 산정월(2022년 6월)까지 공사비 인상이 없고, 착공일 이후에도 물가상승에 의한 공사비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대림산업은 착공기준일(2022년 8월)까지는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이 없다고 했고 GS건설은 2022년 7월까지의 공사비 인상이 없으나 이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한국건설기술연구

원 실적 공사비 지수 가운데 낮은 변동률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한남3구역은 한남동 686 일대(38만 6395.5㎡)에 지하 6층~지상 22층 아파트 197개동 총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와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공사 예정가격이 1조8881억원으로 총 사업비는 약 7조원에 달한다.

◆ 홍보관서 상호비방, 용산구청 예의 주시

건설3사는 조합원 부담을 최소화한 입찰제안서를 통해 표심잡기에 승부수를 띄웠다. 그러나 당초 약속한 대로 클린수주가 성사될 지는 미지수다.

조합 측은 총회와 설명회를 서울 중구 남산제이그랜하우스와 국립극장에서 열었다.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면서 서울 중구청이 조합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면서 임포를 낮치며 행사를 강행했다. 조합 측은 앞으로 이달 14일 시공사 사전투표, 21일 2차 합동설명회 및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용산구청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

수하기 위해 한남3구역 조합에 개방된 공간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건설3사는 지난 5일 홍보관을 열고 3800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상호 비방 대신 자사 설계·사업비와 같은 제안서 중심의 클린 수주문화 구축을 본격화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그러나 홍보관 내부에서는 경쟁사의 경미한 설계변경 여부와 동 간 거리 확보 방안의 차이, 한강 조망권 가구 수 차이, 브랜드 경쟁력 등을 놓고 타사 제안을 비판하는 등 공방전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현대건설은 사업지 인근에 홍보관을 새로 지었고 대림산업은 그랜드하얏트서울 내에 홍보관을 마련했다. GS건설은 신용산역 인근 상가를 홍보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수주전에 뛰어든 업체 관계자는 “홍보관 내 코로나19 방역은 철저히 하고 있다”며 “브랜드 이미지가 걸린 사안인 만큼 수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정연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표 최고 분단진단 기술로 해외진출 속도

IPO기자간담회

젠큐릭스

코넥스서 코스닥 이전 상장 추진
코로나 진단키트 수혜 올 흑자 가능

코로나19수혜 기업으로 꼽히는 젠큐릭스가 기술특례상장제도를 통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다.

젠큐릭스는 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장을 통해 제품 라인업을 강화해 해외시장 진출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상장 일정을 공개했다.

2011년 설립된 젠큐릭스는 유방암 예후진단과 폐암 동반진단, 대장암·간암 조기진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자진단 전문 기업이다. 암 진단 분야에서 특화된 기술력을 가졌다고 평가된다.

유방암 예후 진단키트인 ‘진스웰 BC T’는 국내에선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진스웰 BC T는 조기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항암화학요법을 받지 않아도 높은 생존율을 기대할 수 있는 환자군을 선별해 주는



조상래 젠큐릭스 대표이사가 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장 일정을 공개하고 있다.

/송태화 기자

검사다. 암이 10년 안에 재발할지부터 다른 장기에 전이될 위험성까지 판단한다. 이 외에 디지털 유전자증폭(PCR) 기반의 폐암 동반진단 검사키트인 ‘진스웰 돌연변이 검사’도 출시했다. 가격에서 경쟁사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어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지난해엔 당기순손실 56억원을 기록했으나 올해부터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전 세계적

으로 확산한 코로나19 사태에 발 빠르게 대응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조상래 젠큐릭스 대표이사는 “현재 유럽·중동·아시아·미주 시장에 진단키트를 수출하고 있다”며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증가한 중남미 주요국 등에서 지난달 허가 절차를 완료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허가를 받아낸 덕에 진단키트 뿐 아니라 다른 제품의 판매 채널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분단진단 기술력에 거듭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는 “아시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다”며 “기획 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뒀고, 상업화 측면에서도 성과가 나온 만큼 해외 진출을 통해 매출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젠큐릭스의 공모 주식 수는 총 100만 주. 공모 예정가는 2만2700원에서 2만 6100원으로 책정됐으며 이에 따른 공모 금액은 공모가 하단기준 227억원 규모다. 오는 10~11일 이틀간 수요예측을 거친 후 15~16일 공모청약을 받는다. 이후 25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계획이다.

/송태화 기자 alvin@

‘주안파크자이 더 플래티넘’ 이달 분양

GS건설 컨소시엄, 대단지 공급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쌍용건설)은 6월 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830 일원(주안3구역)에서 ‘주안파크자이 더 플래티넘’을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주안파크자이 더 플래티넘은 지하 2

층~지상 29층, 전용면적 36~84㎡, 총 2054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1327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세부 면적별 공급물량은 ▲전용 36㎡ 50가구 ▲전용 44㎡ 149가구 ▲전용 59㎡ 586가구 ▲전용 73㎡ 359가구 ▲전용 84㎡ 183가구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면적으로 구성된다.

/정연우 기자

미추홀구 주안동 일대는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원도심 지역이다. 향후 편리한 생활 인프라와 어우러진 새 아파트 주거타운으로 거듭나는 만큼 예비청약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주안파크자이 더 플래티넘은 2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규모로 공급되는 데다 각종 브랜드 파워 1위에 빛나는 GS건설 ‘자이’ 브랜드의 노하우와 쌍용건설의 기술력이 더해져 짓는 컨소시엄 아파트다.

신한금투, 360억 베트남 기업 회사채 차환

회사채 발행 2년만에 리파이낸싱

신한금융투자는 베트남 1위의 전력 장비 그룹 젤렉스(GELEX) 회사채 리파이낸싱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신한금융투자가 2018년 국내 증권사 최초로 베트남 현지기업(GELEX)의 역대 회사채 발행에 성공한 이후 2년만에 리파이낸싱에 성공했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이번 거래는 신한금융투자가 지난 2년간 GELEX 그룹과 쌓아온 장기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딜 수임을 했다는 점에서 베트남 자본시장에서 신한금융투자의 커버리지 역량을 보다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

발행회사인 GELEX는 지난 1995년 베트남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해 설립되어 2015년에 민영화된 그룹이다. 전선, 변압기, 계량기 등 베트남 전력장비 시장에서 50% 이상의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리파이낸싱 규모는 7000억동으로 현지의 기관투자자에게 모두 판매됐다. 지난 2년간 약 50% 이상 성장한 GELEX의 재무역량을 반영해, 총 발행규모가 기존 5000억동에서 증액됐다.

신한금융투자 베트남 법인과 신한베트남은행이 모두 협업하는 구조로 진행하여 신한금융그룹의 원-신한(One Shinhan) 글로벌 역량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현대건설, 아파트 안의 ‘스마트팜’ 실현

단지 내 업체류 재배 ‘H클린팜’ 공개
향후 분양단지·오피스텔 선택 제공

현대건설이 미세먼지 등 외부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차단되어 케일, 로메인, 버터헤드 상추를 포함한 각종 업체류 재배가 단지 내에서 가능한 ‘H클린팜’을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H클린팜’은 강화유리와 LED 조명이 설치되어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재배실과 어린이 현장학습 및 교육이 가능한 체험교육실, 내부 온도 및 습도 조절을 도와주는 항온항습실, 수확 이후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준비실 등이 함께 구성된 스마트팜 시스템이다.

현대건설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H클린팜’은 빛, 온도, 습도 등 식물 생육에 필요한 환경요소를 인공지능으로 제어하는 밀폐형 재배시스템을 통해 농작



H클린팜.

/현대건설

물을 재배해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없는 작물재배가 가능한 시설이다.

여기에는 단순한 인도어(실내)팜을 넘어 입주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H클린팜’은 현재 최적화를 위해 시범 운영 중이며, 향후 분양하는 디에이치, 힐스테이트 단지 및 오피스텔 등에 선택적으로 제공한다.

/정연우 기자